

일본 민간경제연구소의 일본경제 전망

일본의 23개 민간경제연구소의 전망에 따르면, 일본경제는 2009년도에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되나 2010년도 이후부터 수출증가를 바탕으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고 2011년에는 성장률이 더욱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다만, 내수중심의 경기회복은 여전히 어려울 전망이다며 물가하락세도 지속될 전망이다.

- 일본경제는 2009년도에 △2.2%, 2010년도 1.6%, 2011년도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

〈표1〉 23개 민간경제연구소의 주요경제지표 평균 전망치

(단위: %)

	실질GDP	개인소비	주택	설비투자	공공투자	수출	수입	명목GDP	CPI
2009년도	-2.2	0.6	-18.4	-15.8	6.7	-9.9	-11.3	-4.0	-1.6
2010년도	1.6	1.1	1.9	2.9	-10.6	11.6	7.1	0.4	-0.9
2011년도	1.9	0.9	4.8	5.1	-5.2	7.5	5.4	1.4	-0.2

주: 2010년 2월 시점에서의 전망치.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第一生命經濟研究所(2010. 2. 24)

- 2009년도에는 수출(△9.9%), 설비투자(△15.8%), 주택투자(△18.4%)의 대폭적인 감소를 배경으로 실질GDP성장률은 △2.2%(명목 △4.0%)에 불과
- 다만, 최근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경기대책을 바탕으로 개인소비와 설비투자가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성장률도 높은 회복세

를 시현(2009년 4/4분기 전기대비 연율 4.6% 성장)

- 2010년도 전반기에는 엔고 등으로 인한 수출증가세 둔화, 경기대책효과의 소진으로 인한 개인소비 감속, 정부의 공공투자 감축정책, 설비투자 과잉감 지속 등으로 성장률 둔화가 예상
 - 다만, 일본경제가 더블 덩에 빠질 것을 크게 우려하던 분위기는 사라졌으며 하반기 이후에는 신흥국 및 미국경제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여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일본경제의 성장률 회복은 수출의 회복여부에 달려 있으며 소비, 투자 등 내수주도에 의한 성장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 민간경제연구소는 중국 등 신흥국이 내수중심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경제도 7,87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대책 등으로 회복세 지속을 전망
 - 이러한 해외경제의 회복으로 인하여 일본의 해외수출은 10% 전후 증가할 전망이며 이것이 일본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
 - 반면 개인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는 고용여건의 악화, 설비과잉감의 지속 등으로 본격적인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경기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
 - 개인소비는 2010년부터 실시되는 어린이 수당 지급이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나 개인소비의 기반이 되는 고용·소득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
 - 실업률은 5%대가 지속될 전망이며 고용과잉감이 강하게 남아 있

고 기업수익이 나쁜 상황이어서 향후에도 인건비 삭감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설비투자는 기업의 저수익, 설비과잉, 저가동률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소비자물가는 2011년까지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디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

<참고자료>

第一生命經濟研究所經濟調査部(2010. 2. 24), 「民間調査機関の經濟見通し (2010年2月)」